원수 대적 경쟁자 없는 삶

(이사야 41:1~29)

11.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15.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16.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원수 대적 경쟁자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원수 대적 경쟁자 없는 삶'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수는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다름 아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원수 대적자 경쟁자가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 복음 사건을 제대로 받으면 원수가 없고 대적자나 경쟁자가 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를 원수 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경쟁자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로상태로 무력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수 없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8~10절에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흥사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어온 유명한 구절인데 대체 무엇이 특이하다는 것일까요?
이 구절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종교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주도권이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신과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숭배 받는 신과 우상들은 인간을 향해 요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와 신과 우상을 만들어서 선택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들과 반대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 신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은 무려 70쇄나 거듭해서 찍어낸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접한 후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장신대 총장을 하셨던 김명용 교수님에 의하면 "이 사람의 책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의 청년들이 초토화 되고 있다"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또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직역하면 '신은 망상이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설쳐대는 이유는 모두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어색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된 주도적인 관계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생겨나는 모순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에게 공격의 여지를 줍니다. 결국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면 택함 받으면 됩니다. 또 주도적으로 붙드시면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부르시면 '예'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시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면 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 놀라지 않으면 됩니다. 나를 굳세게 하신다면 굳세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신다는 데도 굳세어지지를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도움을 안 받습니다. 나를 붙드시겠다고 하시는데 붙드시도록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것저것 뭐라도 하라고 하셔야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하시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항상 삶이 어렵고 신앙생활도 기진맥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세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원수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진짜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삶에서 원수가 생기게 하였습니다. 원수에는 내적 원수와 외적 원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원수로 인해서 외적인 원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적인 원수만 없어지면 외적인 원수도 없어집니다. 내적 원수가 없어서 외적 원수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택하시면 택함 받습니다. 붙드시면 붙들림을 받고, 굳세게 하시면 굳세어집니다. 도와주실 때에는 도움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 놀라지 않습니다. 원수만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대적해야만 하는 진짜 원수인 마귀는 우리에게 원수들에 대한 착각을 심었습니다. 내적 원수를 만들고 이로 인해 외적 원수가 생기게 한 것입니다. 내적 원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원수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적 원수와 외적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배경은 앞장과 마찬가지로 160여년 후에 일어날 포로귀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포로귀환 사건은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너희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포로가 되었으니 이들을 포로로 잡은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두 종류의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으로 쓰인 본문은 크게 1~14절과 15~29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4절에서는 고레스 왕의 등장이 이야기됩니다. 고레스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바사 왕으로서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해방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 다시 고레스 왕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의미적으로 14절까지는 외적인 원수 척결에 대해, 15절부터는 내적인 원수

에 대한 교훈이 나타납니다. 외적인 원수 척결에 대한 언급은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내용입니다.
11~12절을 보면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선민들의 외적인 원수는 앗수르나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원수답지 못하게 되리리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원수답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수가 원수인 이유는 내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작 이 원수들을 처리해주시지 왜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여년이나 지나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를 예언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복잡한 원수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15절에서 또 하나의 원수가 등장합니다. 이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적인 원수를 이해할 수 없다면 앞서 나온 외적인 원수가 생겨난 이유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15~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적인 원수가 척결된 결과 17절부터는 지독한 갈증이 해결될 것이 예언됩니다.
여기서 부스러기로 만들 산들과 작은 산들은 앞서 나왔던 앗수르나 바벨론이 외적인 대적들이 아니라 내 마음 속 원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다 척결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들과 작은 산들로 비유된 원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이외에 자랑하던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목숨이 대표적입니다. 내 목숨이 모든 자랑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자랑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형제 자녀가 소중합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체 혹은 모아둔 재산이 자랑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명예도 이러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내적인 원수가 됩니다.
이것들이 산에 비유된 이유는 마음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건강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린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60~70세에 혈압도 높지 않고 당수치도 정상이라 마음이

뿌듯합니다. 입으로는 꺼내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을 자랑으로 여기고 싶은데 정작 건강이 없는 사람은 기가 죽어 살아갑니다. 자랑하고 사나 기가 죽어서 사나 영적으로는 똑같이 건강을 사랑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세상의 소중한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음에서 자녀가 차지한 자리만큼 하나님은 들어오실 곳이 없어집니다. 배우자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빼앗아 갔으니 자녀도 내적인 원수가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내적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주관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건강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먼저 잡고나면 결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오히려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세상 가치를 먼저 끌어안고 이제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종용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인간 주도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리처드 도킨스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것들이 내적인 원수가 됩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나의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고 재산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소중한 줄 모르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이 나의 원수인 줄도 모릅니다. 마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이외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수입니다.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셔도 택함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려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 이외의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을 위해서 주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체적이 되니 나의 주체성의 칼날이 하나님의 주체성의 칼날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원수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원수가 생겨납니다. 원수는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소중한데 이 자녀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게는 처리해야만 하는 원수가 됩니다. 내 재산이 소중합니다. 이 재산에 손해를 주려는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누가 내 돈을 사기 쳤다면 내 안에 들어오신 소중한 하나님께서 세상만사를 이끌어 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잃어버린 돈, 하나님을 보면서 잃어버린 돈에 대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돈의 두세 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동안 내적인 원수가 척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동안에는 외적인 원수가 늘어갑니다. 경쟁자와 대적자가 늘어갑니다. 내가 마음에서 승진을 소중히 여기는 상황에서 부장 자리는 하나인데 경쟁자는 셋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나의 경쟁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어떻게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승진을 못하게 될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열 명 중에서도 나를 뽑아 부장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 됩니다. 부장자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돈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들은 내적인 원수입니다. 이것들이 산들과 작은 산들로 비유된 이유는 그만큼 내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바벨론이나 앗수르 같은 존재들이 외적인 원수가 됩니다. 바벨론이나 앗수르는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를 빼앗아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적인 원수를 만들게 하는 내적인 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원수인줄도 모르고 산처럼 굳건하게 자리 잡도록 붙잡습니다.

선민들을 해방시키는 고레스는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동안 유일하게 소중하신 하나님은 바깥으로 쫓겨나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는 원수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소중하다 보니 가는 곳마다 외적인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안에 소중하게 모시면 외적인 원수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을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기를 쳐서 내 돈을 빼앗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돈이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로 비유된 질병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나에게 누가 손해를 끼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세상의 가치들이 내게 생기거나 없어질 수도 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졌으니 다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내 마음에 있는 산들과 작은 산들을 부셔서 가루로 만드십니다.
내 속에 움직이지 않고 굳건하게 서있던 세상의 가치들은 마귀의 속삭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소중히 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을 맺도록 주신 것입니다.
나와 배우자 혹은 나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해가시기 위해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지 나더러 돌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엄청난 착각을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 몸 하나도 건사할 수 없는 내가 무슨 힘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세상의 가치들이 산처럼 존재하는 상태를 끝없이 십자가에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내 마음에서 부셔져서 가루가 되어도 실제로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서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들을 부셔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는 원수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적자 없고 경쟁자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내 안에 있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부셔지게 하셔서 외적인 원수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희한한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